

‘트래블카드’ 통했다… 지난달 카드 해외승인금액 10조 돌파

카드업계, 휴가철 특수공략 성공
9개사 해외 승인금액 11.4조
지난달 동기 대비 24.7% 늘어
신한 2조, 하나 2조… 실적 견인
트래블카드 차별화 전략 효과

카드 해외승인금액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경기회복에도 지난달 10조원을 돌파했다. 카드업계가 트래블카드를 중심으로 휴가철 특수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카드사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개인 신용·체크카드 해외승인금액은 11조41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1조8302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를 찾은 여행객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동기(9조1506억원)와 비교하면 24.7%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서 올 해외승인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이유다. 지난해 연간 해외승인금액은 16조3687억원을 기록했다. 휴가기간이 집중되는 8~9월 해외승인금액이 분수령이다.



챗GPT에 의해 생성된 ‘신용카드 들고 해외여행 떠나는 가족’ 이미지.

카드사 중 해외승인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카드다. 신한카드의 해외 승인금액은 연간 24.7% (4213억원) 증가한 2조1235억원이다. 이 중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1조3355억원으로 전년(1조2531억원) 대비 6.5% 늘었다. 이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7880억원으로 75.4% 성장했다.

신한카드의 성장 배경에는 지난 1분기 출시한 ‘쏠 트래블 카드’ 때문이다. 카드업계 최초로 트래블카드에 공항라운지 혜택을 탑재했다. 쏠 트래블 카드는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의 남다른 자

부심이 담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달 진행된 하반기사업전략회의에서는 쏠 트래블 카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했다.

하나카드도 해외 승인금액 2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지난 7월 하나카드의 신용카드 해외승인금액은 6899억원이다. 전년(6268억원) 대비 631억원 증가했다. 이는 업계 5위 수준이며 전체 승인금액(2조955억원)의 32.9%다.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소폭 오르는데 그쳤지만, 체크카드 이용잔액이 크게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체크카드

로 해외여행객 포섭에 성공한 셈이다. 지난달 하나카드의 체크카드 해외이용잔액은 1조4055억원이다. 지난해 동기(5493억원) 대비 155.8% 증가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2022년 7월 업계 최초로 ‘트래블카드’의 공식을 적용한 ‘트래블로그’를 출시한 바 있다.

그간 카드업계는 여행업종에 공을 들였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모두 트래블카드를 운영 중이다. 해외여행객을 위해 호텔·항공권 할인 등 비용절감 행사도 연달아 진행했다. 엔데믹 이후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운수업종의 카드승인잔액은 1조59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7월(1조4100억원)을 추월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여행업종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여행업종 내 카드사 간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 혜택도 더 커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현대해상 전문대졸 신입 공채 메타버스 채용상담회

현대해상이 2024년 전문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 Hi-Verse 메타버스 채용상담회

현대해상은 2024년 전문대졸 신입사원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25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다. 오는 9월 6일 18시까지 현대해상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1차 면접, 최종면접의 전형을 거쳐 11월 1일 입사 예정이다. 입사자들은 전국의 현대해상 지점에서 총무 역할을 맡게 된다.

오는 9월 4일 10시부터 ZEP플랫폼 기반의 메타버스 공간인 Hi-Verse(하이버스)에서 ‘2024년 메타버스 채용상담회’를 개최한다. 지원자들은 별도 사전신청 없이 자유롭게 메타버스 채용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다. 채용담당자와 지점총무 직무 선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번 채용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대해상 채용관계자는 “현대해상은 고객지향적인 마인드와 책임감을 가진 우수 인재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문화 핵심가치인 ‘HEART’(Honor 존중, Efficiency 효율, Action 실행, Right 정도, Together 협력)를 통해 현대해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다른 차 운전담보 보장특약 2종 선택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했다.

◆ 대물배상 가입금액 10억~20억 확대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기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 ‘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되는 특약은 오는 10월 6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는 사고 발생시 ‘대인배상I’에서 실제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지급해 갹신시 타인의 자동차보험도 할증됐다. 이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인배상I 지원금’ 담보를 신설했다.

‘대인배상I 지원금’은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사고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I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보전해 사고 차량의 할증을 방지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 담보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하며,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김주형 기자

“고위험운전자 車 보험료로 안전운전 유도해야”

음주·고령운전자 사고위험 높아 할증률 인상 등 제도개선 필요

음주운전 및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료를 통해 안전운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위험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 시 사고의 심도가 높았고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다른 사고에 비해 많았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중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아 인구고령화로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1회 적발 비율이 감소한 반면 3회 이상 적발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재발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일반 교통사고 대비 사고 심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령별 사고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운전면허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는 65세 이상이 0.9건으로 고령인구

의 사고 비중이 20세 이하 1.04건인 저연령층 다음으로 높았다.

천 연구위원은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운전자 비중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이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 방지 유인책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해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필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은 음주운전 시 28~158% 높은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초범 시 9%, 재범 시 12%

인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사고 가해자의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주요국과는 달리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의 경우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해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경우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을 높이고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삼성물산, 부산 사직2 재개발 사업 수주

부산시 동래구 사직2구역 재개발 사업을 삼성물산이 가져갔다.

25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에 따르면 사직2 재개발 조합은 전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사직2 재개발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3층~지상36층 아파트 5개동, 927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4492억원 규모다.

사직2 재개발은 도보 10분 이내에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호선 사직역, 1호선·4호선 동래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중앙대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좋다.



부산 사직2 재개발 조감도.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단지 컨셉명칭으로 ‘래미안 사직 엘라티오’를 제안했다. 라틴어로 위대함과 상상을 뜻하는 ‘엘라티오(Elatio)’를 차용했으며, 사직2 재개발을 동래구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이달 마지막주 전국 3곳서 3868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등 청약 모델하우스는 6곳 오픈 예정

8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3868가구(일반분양 124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대전 유성구 장대동 ‘대전장대A1(행복주택)’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 ‘라체르포푸르지오써밋’,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양우내안에퍼스티지’,

경기 김포시 북변동 ‘한강수자인오브센트’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디에이치방배’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3층, 29개동, 총 3,06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4㎡, 1,24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역세권 단지다. 서문여고, 동덕여고, 상문고교 등이 인접해 있다. 서리플 복합시설 개발(비즈니스타운), 사당역 인근 복합환승센터(2026년 착공 목표) 등 개발 계획이 추진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